

을 뿐만 알고 즐 즐은 모르기 때문이다. 간호원에게서도 친절과 봉사들 받기 만을 기대하고 그 친절과 봉사의 Resousce가 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환자들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워왔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간호원들이 왜 그 친절을 잃어가며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즉 오죽하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호원의 파업을 혹평한 것이다.

간호직은 성직자 중의 성직자이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그런 간호직을 택한 사람들에게 Nightingale의 멍에를 씌우고 사람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의 파업같은 것이 열번이던 백번이던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배우개선문제가 총무처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내년도 총선거에는 여성들의 보수 특히 간호원의 보수를 얼마만큼 더 올려줄 것이냐를 정부에 진의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으려고 여성단체에서 연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두 파업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그리고 간호원이 앞으로 행정부나 기타 여러기관을 통해 제대트의 보수를 받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무사적, 지사적, 애국자적 그리고 성직자적인 간호원이 되리다고 믿어진다.

사 회 학 적 으 로 본 간 호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교수 구 범 모

社會的으로 보아 看護의 機能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疾病治療와 관련된 看護 본래의 기능이고, 둘째는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를 社會的으로 계몽하는 社會的 機能이라 지적할 수 있다. 첫째의 기능을 微視的으로는 疾病治療란 技術的 次元에서만 把握하여 그에 필요한 技能의 習得만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그 見解는 지나치게 消極的인 理解라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疾病治療 그 자체의 機能遂行을 위해서도 단순히 技術과 技能만으로는 부족하니 患者의 心理와 社會的 背景에 따른 相談者로서의 역할이 不可缺하게 重要하다는 것이다. 患者의 心理的 狀況을 分析하여 적절한 助言을 해준다든지 患者의 職業 및 社會的 背景에 따라 적절한 話題로서 對話에 臨하는 기능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기능을 非醫學的인 기능이라 지탄할지 모르지만 그 기능이 疾病治療 자체를 위해서도 不可缺할 뿐 아니라 患者의 治療기간을 일종의 教養期間으로도 轉換할 수 있는 積極적 機能이라 생각된다.

둘째로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를 社會的으로 계몽하는 기능도 豫防醫學의 重要性이 강조될수록 부각되는 看護의 영역이라 생각된다. 크게 보아 日常生活의 看護化를 통해 社會의 健康을 促進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病院 內에서의 白衣天使라는 소극적인 기능만을 自負할 것이 아니라 患者의 治療 뿐 아니라 健康管理을 위한 啓蒙의 역할을 社會에 대해 成功的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상 지적한 두가지 기능의 成功的인 수행이 看護領域을 技術學校수준에서 大學수준으로 昇格한 重要한 理由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看護기능이 그렇게 發展的으로 擴大되어야 看護의 實질이 病院 內에서의 從屬的인 存在로서의 白衣天使가 아닌 待望의 社會 속의 白衣天使로 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